

# 고대 불상 조각, 고국 미얀마로 돌아간다

### 미얀마 1989년 도난당한 바간 지역 사암 불상 조각 돌려받아 캐서린 레이몬드(일리노이대학) 교수 노력으로

1989년 밀반출된 고대 불상 일부가 고국, 미얀마로 돌아간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지는 11월 2일 "1989년 미얀마에서 밀반출된 불상 일부가 캐서린 레이몬드(Catherine Raymond, 일리노이대학)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11월 중 미얀마로 반환된다"고 보도했다. 이번엔 반환되는 불상 일부는 미얀마의 대도시 바간 시 근교에 있는 사암 불상의 상단 부분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은 19세기 바간 시 일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훼손된 이후 복원되지 않고 보관되었는데, 1989년 도난당한 밀반출된 것이다. 당시 관련 학자들은 "바간 시 근교 고대 불탑에 조성된 이 불상은 바간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불교와 당시 권력층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도난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불상 일부는 이듬해 미국 골동품 시장에 나타났고, 미국인 미술상이 이를 구입했다. 그러나 밀반출, 밀반입 유통로 밝혀지면서 FBI가 이를 압수, 지금까지 뉴욕 소재 일리노이 대학 부설 미술관에서 보관해 왔다. "이 불상의 일부를 처음 접했을 때가 1995년입니다. 그때 안타까움이 먼저 일었다"는 캐서린 교수는 "이 유물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유물의 가치를 밝히는 연구에 몰두해 '사암 불상의 독특한 도상과 수인이 당시 바간 왕국의 정치권력을 상징하도록 안배된 것임'을 알아내는 한편 2007년부터 반환 방법을 여러 사람과 논의해, 지금의 성과를 낼

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교수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사암 불상 조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반환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프랑스 주재 미얀마 대사', FBI, 연방검찰 등과 접촉하는 한편 민사 형사법정에도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사암 불상의 일부는 2013년 프랑스로 건너갈 수 있었고, 이제 미얀마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얀마 국립미술관은 "불상의 일부가 돌아오는 즉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불상의 하단 부분과 접합하는 복원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미얀마 행정 당국이 유물 밀반출을 막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중 반환될 사암불상 조각은 19세기 지진으로 부러졌던 부처님의 몸통 하부 부분의 복원을 통해 2014년 2월부터 국립박물관에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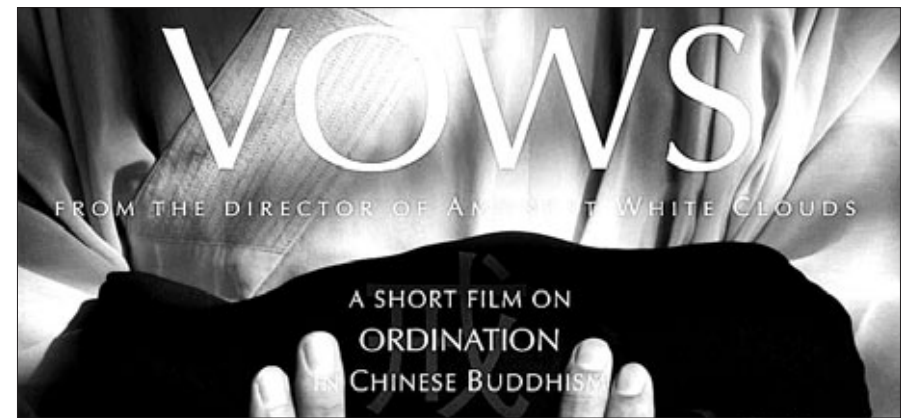
오종욱 편집위원



1989년 밀반출된 고대 불상이 미얀마로 돌아간다. 이번엔 반환되는 불상 일부는 미얀마의 대도시 바간 시 근교에 있는 사암 불상의 상단 부분으로 알려졌다.

# 7명의 중국 스님 출가사연 다큐로

### 'VOWS'(서원)… 37분 영상으로 수도승 생활 조명



스님들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계율의 의미를 묻는 다큐멘터리 'VOWS'의 스틸컷.

중국 불교의 수행과 계율을 그대로 접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 작품의 제목은 'VOWS', 우리말로 '서원'이다. 부제는 '계(戒)'다. 37분 길이의 영상으로 간략하면서도 밀도있게 수도승들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다.

다큐는 7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님이 된 사연을 축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스님들의 진솔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불교 수행의 전통을 지키는 데서 오는 갈등과 고민 또한 담았다. 깨달음과 수행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점은 물론이다.

공개된 예고편에 등장한 스님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계율로써 지켜야했다"며 그 과정 중에 많은 의문이 들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촬영은 선 수련으로 유명한 백림사에서 진행됐으며 백림사 명 월 스님이 내레이션을 직접 맡았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지만 살아야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담담한 스님의 내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수행승의 이야기지만 삶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기에 일반인으로서 공감하는데 문제가 없다.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 에드워드 버거(Edward Burger)의 작품으로 '부처를 꿈꾸다(Dreaming Buddhas Project)' 시리즈로 기획된 두 번째 영상이다. 첫 번째 작품은 'Amongst White Clouds'로 중국의 숲속에서 은거하며 홀로 수행 정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자같은 스님부터 깨달음을 위해 고행하고 고행하는 수행자 등이 등장한다. 은근한 유머와 따뜻한 감정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고통과 깨달음 사이에 놓인 인생을 관조할 수 있다.

버거 감독은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적 의미가 담긴 작품을 주로 찍어왔다. 그는 영화를 찍는 자신만의 원칙으로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영상제작을 꼽았다. **배현진 기자**

# 티벳 불교계, 히말라야 수원 지키기 나서

### 세계 야생 기금 후원 ... 17대 칼마파 '신성한 대지 프로그램' 운영 "인도·네팔·티벳 망명정부, 히말라야 수원 함께 보존해야"



17대 칼마파 오겐 트린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스님. VOA 지와의 인터뷰에서 스님은 "인도·네팔 정부가 티벳 망명정부의 히말라야 수원 보호에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히말라야 지역 50개 티벳 사원이 청정한 물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 지는 "50개 티벳 사원 대표 스님들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모여, 티벳 고원의 수원(水源)을 보존하고 주변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한 '티벳 고원의 청정한 물'을 주제로 지난 5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VOA 지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오겐 트린레 도르제(Ogyen Trinley Dorje) 스님의 말을 인용, "이번 회의는 티벳 고원 지대의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대처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17대 칼마파로 불리며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오겐 트린레 도르제 스님은 "현재 티벳 고원 지대의 기후 변화로 영구 동토층이 용해되면서 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티벳 고원의 수원은 대부분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 문제는 비단 티벳 고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5일 14세의 나이로 히말라야를 넘어 망명한 이래 20년 가까이 티벳의 불교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오겐 트린레 도르제 스님은 최근 '세계 야생 기금(World Wildlife Fund)'의 후원을 받아, 티벳 고원 지대에 있는 50개 사원이 참여하는 '신성한 대지 프로그램(Sacred Eart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

회는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VOA> 지는 "히말라야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티벳 망명정부의 텐진 노르부(Tenzin Norbu) 환경·개발 국장의 말을 인용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국가간 연대와 비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티벳 망명 정부는 특히 인도 정부의 깊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 지는 또한 "티벳 고원과 네팔이 떨어진 수 없는 지리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도와 네팔 정부가 티벳 고원의 환경적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티벳 망명 정부와 연대해 고원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지하수 개발 및 사용' '빗물을 이용한 지하수 보충' 등과 같이 수자원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불교 성지 오대산 인근에 공항이?

### 성지순례객 위해 공항 건설

불교의 성산이라 불리는 오대산 인근에 '성지순례객들을 위한 공항'이 들어선다. 오대산은(五臺山)은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 '금의 오대산, 은의 보타산, 동의 아미산, 쇠의 구화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의 절경과 더불어 역사가 깊은 각각각의 절을 보러 매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2009년에는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신설되는 공항은 오대산에서 70km가량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다는. 군사용 비행장이었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됐다. 지금까지는 중국 태원에서 1월 4~5회 운행되는 버스를 타고 오대산으로 갈 수 있었다. 북경에서는 혼잡까지 간 후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공항 건설로 오대산까지 1시간도 안 걸릴 만큼 차편이 간소해졌다.

중국 최초의 사원인 낙양 백마사와 같은 해인 서기 68년에 창건된 현통사를 비롯, 당나라 때 지어진 불광사, 500개 대규모 조각상이 있는 수상사 등 53개 사찰을 품고 있다.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중국 불교 사원 건축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한 중국 내륙지역의 불교와 티베트 불교까지 공존하여 중국 불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원 이상



중국 4대 불교 명산 중 하나인 오대산 인근에 공항이 들어선다.

이 투입된 공항은 2015년에 완공되며 연 이용객이 3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기자**

# 동남아시아 불교 힌두교 예술 보존 청신호

### 알파우드 재단, 3초 5천억원 연차 지원 계획 밝혀

동남아시아 불교와 힌두교의 예술의 보존과 연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힌두(The Hindu)> 지는 11월 4일 알파우드(Alphawood) 재단의 보도자료를 인용, "알파우드 재단이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힌두교 예술의 보존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런던대학 산하 '동양·아프리카 학회(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이하 SOAS)'의 연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알파우드 재단은 향후 20억 파운드(약 3조 5천억 원)를 연차적으로 SOAS에 지원한다. 이 기금은 SOAS 산하 80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물론 SOAS 산하 '아시아 예술 학교(School of Asian Arts)'의 운영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알파우드 재단이 동남아 불교와 힌두교 예술을 보존·연구하는 런던대 '동양 아프리카학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 개설, 운영되고 있는 SOAS의 '아시아 예술 학교'는 동남아시아 종교, 언어, 예술, 고고학 등을 교육과 연구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최고의 전문학교로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청신세계  
기반

기반의 청신세계  
기반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  
기반

성명 불행까지  
정신을  
사용할 수 있는  
수련자  
기반

기반  
정신 안정과  
안녕, 건강한  
나와  
안녕입니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음 법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